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7.84	↑ 코스닥	661.59
	(+57.26)		(+34.58)
↓ 금리 (미국 9년)	2.524	↓ 환율 (원-달러)	1428.70
	(-0.055)		(-8.30)



‘출국금지’尹, 사상 최초 강제수사·긴급체포 가능성도

특수본,尹 대통령에 ‘내란죄’ 적용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 적용 안돼
‘내란공모’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이상민·이진우 소환조사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검·경에서는 강제수사 및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수괴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시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중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이 경찰은 내란행위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처벌까지 가능하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모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탄핵정국 관련기사 2·3·4면〉

내란혐의 상설특검尹 신속체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내란 상설특검 찬성 210표 ‘가결’
곽규택 등 국민의힘 23명 찬성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 수 없어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서예진 기자 syj@

野 주도 ‘4.1조 감액’ 내년 예산안 통과… 673.3조 확정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673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감액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 찬성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9일)부터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정부는 67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에서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7000억원 감액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감액한 4조1000억원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3000억원을 복원을 요구하고 민주당의 정책적 요구인 지역화폐 4000억원과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지원 예

산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선 그 규모에 맞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당정도 거부하며 감액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

입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민주 내란대책위 “탄핵 외 길 없다… 외교·경제위기 관리 당력 집중”
- ▲ 한동훈, 중진들 권선동 원내대표 추대에 “적절하지 않아” /사진 뉴스1

- ▲ 법사위 법안소위,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의결
- ▲ 한 총리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 北 도발시 즉각 대응태세 유지”



- ▲ 여 내부서 “14일 탄핵안 표결 참여해야” 의견 /사진 뉴스1
- ▲ 거래스 찾은 야3당 “국가신용 불확실성 커져… 안정 방안 고민”

검·경·공, 한자리에 모인다… 범국가적 수사 협의체 예고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기관 대면협상 예정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 최소화
“참석자, 일정 등은 조율 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각 수사 기관들이 중복 수사를 벌여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고, 두 기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협의를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수사에 협조

하기로 한 만큼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 합동 수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 주체임을 천명하며 각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각각 처리·완료하는 등 중복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국수본 측에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

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공수처도 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차·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수처는 전날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의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처장은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으로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개 수사기관 모두 개별 수사를 하기에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이에 검찰은 수사 혼선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경찰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또한 전날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대표전화 1544-1120
www.kibo.or.kr

상상했던 기술 꿈꿔왔던 내일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기술기업의 꿈이 담긴 기술 덕분입니다

K

I

B

O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KIBO

기술보증기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韓 증시 불확실성 감소 기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2014년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로 올랐을 때도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22년

시행이 2년 유예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완전히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됐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의 결과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다. 금융당국과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입장 조정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며, 투자 심리 안정에 긴요한 법안으로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더라도 약속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준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ICT 초유의 '비상계엄' 막아내다

SNS 등 계엄사태 실시간 중계
온·오프라인 경계 넘어 사회 영향

연일 여의도 국회의 중심으로 전국에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초고속 통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ICT)이 특특히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선포한 후 4일 새벽 해제한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중계 된 비상계엄령은 당일부터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곧이어 10일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특정 단체의 공지나 알림 없이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되며 인파를 모으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1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탄핵 촉구 시위에서 전세대를 넘나드는 결집에 SNS 문화와 초고속 통신 등 ICT 기술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약 10분 여간 접속이 지연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유튜브 또한 생중계를 진행한 언론사의 스트리밍 영상들이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했다. 과거 계엄령들과 달리 발달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접한 사람들이 각 플랫폼으로 집결하며 일어난 일이다. 시민들의 뉴스 확인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네이버는 "지진, 대설, 태풍 등 재해 재난 상황에서 네이버를 접속하여 정보를 탐색했던 역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접속량을 보였으나 대부분 서비스가 정상 가동됐다"며 "온라인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구축해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계획)이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또한 과거 경주·포항 지진 당시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트래픽 급증 경험을 토대로 보강한 비상대응 체제로 지연 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집회 시위 경험이 많지 않은 시민들까지 탄핵 촉구 시위로 결집시킨 것은 각 개인들이 만든 다양한

정보 알림과 SNS의 전파력이 역할을 했다.

지난 7일 익명의 IT 개발자는 '촛불집회 가이드'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위 가이드를 자청하고 나섰다. 준비물부터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자주 찾는 장소(화장실), 시민들이 전달하는 서포트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총망라했다.

사이트를 개설한 당사자는 "하나의 촛불이라도 더 모일 수 있길 바라며 용기 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식음료 또한 상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해 식음료를 선결제 한 후 SNS를 통해 사실을 알리 시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일 H씨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의도 KBS본점에 위치한 한 카페에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알렸다. H씨는 "꼭 따뜻한 커피 받아 추운 몸을 녹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깃발과 응원봉 등도 스트리밍과 SNS에서의 유머로 받아들여지며 과거 여는 시위보다도 많이 등장했다. 동호회를 통해 깃발을 제작하고 자 했던 윤해진(31)씨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제작 사이트에서 주문하려 했더니 아예 접속량 초과로 홈페이지가 뜨지 않았다"며 "전화로 문의하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미있는 깃발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았다. 9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탄핵 촉구 반대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 고교생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그대로 스트리밍됐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으로 순식간에 남고생의 신상정보가 털렸고 사람들은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 SNS 계정으로 몰려가 항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위를 보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했다"며 "평화 시위의 이면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삭제 되지 않는 온라인의 영속성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AI·통신 등 산업 첨단화 '발목' R&D 예타 폐지 물 건너가나

통과 예정이었던 ICT 현안 급제동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약화 우려
"안정적인 투자 환경 만들어줘야"

게임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연내 통과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들의 추진이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AI 기본법은 물론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 이에 따라 국내 정치리스크로 인해 ICT 관련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됐던 단통법 폐지안도 물거품되며 가계 이동통신비 절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여야는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

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안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연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연내 가계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통법 폐지안의 추진 불발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ICT 현안이 처리가 모두 보류되면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보류된 것을 기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신 3는 본업인 통신업을 탈피해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시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다. 또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최근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을 이번 기회로 다시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AI 기본법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ICT 업계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케 하는 AI 기본법까지 보류돼서다. AI 기본법은 AI 법적 정의부터 기술 육성 및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 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졌다. 또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했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ICT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극 나서려면 규제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연말특수 '깜깜'... 유통업계, 실적방어 안간힘

'정치적 불안정' 새로운 변수 작용
주중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시

마트와 백화점들이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며 신년 준비에 돌입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업계에 정치적 불안정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하나씩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신년맞이 준비에 나선다. 대형마트는 오는 12일부터, 백화점은 20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연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우려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이번 연말과 설은 경기 악화로 부진했던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선제적으로 설 선물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주류와 육류 제품군을 강화했으며, 롯데마트는 지난해보다 설 선물사전 예약대상 품목을 늘려 총 800여 가지의 상품을 선보인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부 사진

/뉴스1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계획을 미루는 등 연말 특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말 특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통업계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인해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재무 상황이 가뜰이나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이마트도 할인점 부문 매출이 4.4% 줄었다. 백화점 업계

역시 부진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주요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9%, 12.7%, 5.3% 감소하며 내수 경기 침체를 실감하게 했다.

한편,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려는 마트와 백화점을 넘어 의류 업계에도 퍼질 전망이다. 길어진 가을로 겨울 계절 특수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버린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김 모 씨(29)는 "평소 같았으면, 백화점도 다니면서 연말 쇼핑을 많이 했었을 텐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지라 옷 구매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與, 尹 대통령 퇴진안 찬반 갈등 격화... 친윤계·친한계 대립

TF, '내년 상반기 대선' 로드맵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제시 친윤계, 임기 단축 개헌 주장 친한계, 퇴진 시점 불만 제기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담은 윤 대통령 퇴진 및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선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3개 분야로 나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의원 회동 후 비상의원총회장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 퇴진 로드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F의 이 같은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2월 내지, 3월의 하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야 시점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 TF의 선택지에 즉시하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

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예측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내드리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해도 어차피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과 정치를 동원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임기 단축론을 꺼냈다.

이어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전세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은 오전 회의를 열고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돼 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동 결과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10일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12일 선출을 위한 의원들의 표결을 거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곽종근 "계엄군 명령 거부하지 못해 후회...尹과 2차 통화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관)

정치적 중립 위반 인정하며 양심 고백 계엄군 선관위 서버 압수 시도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되돌아보면(계엄 선포 후) 초기 투입될 때, 명령 수행할 때부터 안 된다"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군 투입 명령을 받자마자 반대할 용기가 왜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까지 4개 부대가 국회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엔 급박하게 명령을 계속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가야 한다는 사명이 앞서다 보니 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상황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서 총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용 문제, 안전 문제, 국회 진입 문제 등에 항명죄란 것을 알았으나 중간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작전 철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최초 명령

에 거부하지 못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현안 질의 초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전 현안질의 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엔 윤 대통령의 추가 통

화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곽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전화를 또 받았나"라고 묻자 약 10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가 고함치기 전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제한 사항"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이용해 국회로 투입된 707특임단이 어디까지 갔냐고 곽 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로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곽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가 중요하다고 곽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치됐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에 계속 오후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

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성우 육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성우 1처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법무관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자 정 1처장은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서버 복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세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으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됐다"고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은 문상호 육군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다"며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문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원·달러 환율, 1420원대 안착... 외환 당국 개입 효과

10일 원·달러 환율, 달러당 1426.90원 정치 불안 속, 상승 가능성 여전히 존재

비상계엄령 후폭풍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 자리를 잡았다. 외환 당국이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진정세를 보였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일 '억김치프리미엄'이 지속됐던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대부분 회복됐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6.90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0.10원(0.70%) 하

락(원화 가치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환율 하락은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갑작스러운 환율 하락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아침 외환 시장 개장에 앞서 진행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야당 주도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불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빠르게 상승했

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장중 한때 1444.7원까지 상승했고, 탄핵 불발 이후 처음 열린 장인 9일에도 장중 최고가로 1438.3원을 기록했다.

탄핵 소추안 불발로 비상계엄령의 후폭풍이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2차 계엄령 가능성 등 우려도 제기되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것.

당국의 개입 가능성 시사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 자리를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치적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두산에너지빌, 로봇틱스와 분할합병 무산

내일 임시 주총 열지 않기로 정치 불안·주가 하락 결정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 합병안이 무산됐다. 이는 탄핵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0일 임시 이사회에서 분할 합병안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임시 주총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박상현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4차 주주서한에서 "갑작스러운 외부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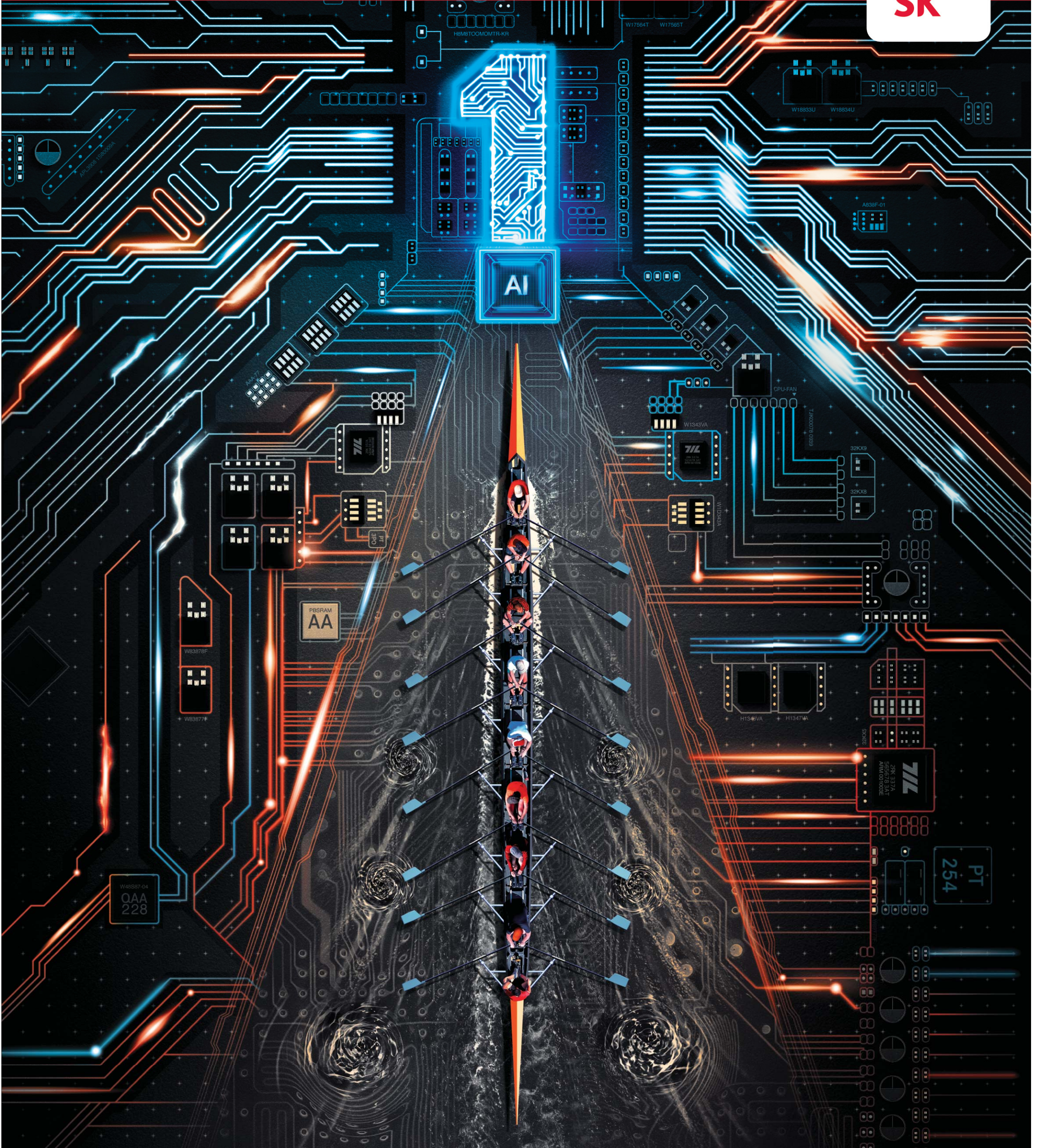
하면서 회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해,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등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고 주가와 주주매수청구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이용처·금액 제한으로 부정수급 ↓... 안정성 보완은 필요

디지털화폐 CBDC 온다

〈하〉 디지털바우처

#. 2026년 중학생 자녀를 둔 김민선(35세·가명)씨는 지난해부터 용돈을 디지털화폐(CBDC)로 주기 시작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사이 사먹는 음식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다. 김 씨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집에선 치즈, 우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먹을까 우려가 됐다”며 “음식도 제한할 수 있고, 중학생들 사이에서 자주한다는 도박사이트 결제도 막을 수 있어 안심이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 CBDC는 디지털 바우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사용자·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 등 7개 은행 이용자 중 약 10만 명은 CBDC를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앞서 7개 국내 은행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론키



/유투이미지

중개기관 가입 최소화·조건설정 특징 정부·기업 지원 보조금·상품권보다 부정수급 낮추고, 대금지급 빨라져 제한 통해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사이버 공격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반 지급·이체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바우처에 이용처·이용금액 제한

CBDC의 첫 활용처가 디지털 바우처가 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가입이 최소화되고 사용자·품목·기한 등의 조건 설정을 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 정부·기업 등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정산시스템이 복잡하고 느린데다 사후 검증방식으로 이뤄져 부정 수급 우려가 높았다.

예컨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 취약계층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면 정부는 결제내역을

수동 검증해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통상 결제일+3영업일 이내지만, 바우처의 경우 결제일+10영업일이다.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한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만 갖고 현금으로 받는 현금강,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간 기간에도 수업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업을 결제하는 등의 부정수급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는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했다.

CBDC를 활용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바우처 지급조건을 확인·결제할 수 있고, 판매물품과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돼 대금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BDC를 디지털바우처로 활용하는 기능은 점차 확대돼 개인과 개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는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는 경우 학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경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당 음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체를 제한해 현금거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CBDC의 그늘 '금융감시수단'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CBDC의 활용이 금융감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제도(ESCB)는 소액에 한하여 중앙은행의 모니터링 및 승인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지만, 결국은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했다.

CBDC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제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신설하고, 여성관리자 다수 기용”

조직개편·부서장 인사 실시 부서장 75명 중 74명 대거 재배치 조직 내 세대교체 가속화 ‘집중’ 금융약자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강화

금융감독원이 디지털·IT 부문과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금융약자를 보호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0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 실시’하고 관련 인사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부서장 인사에서 돋보인 점으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 및 과감한

인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부서장은 본부와 지원부서장 보직자 75명 중 74명을 대거 재배치했다. 기수별로는 주무부서장대상을 기존권역·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크게 낮추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으로 배출하는 한편,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했다.

연령도 1972~75년생 부서장을 주축으로 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하는 등 ‘조직 내 세대교체 가속화’에 집중했다.

특히 신설된 디지털·IT 부문 책임자는 부원장보로 격했다. 금감원 측은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약자를 위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및 최근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부서인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했다.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은 기존 2개팀,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7개 팀, 40명 내외 정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 중요성이 커진 만큼 조직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재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

용대응 1·2팀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해 1·2·3팀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수사 연계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보험리스크관리국은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했다. 다수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 심사, 감리 업무 등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일원화된다.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검사3국 내 검사팀을 추가 신설하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도 종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민생침해 금융

범죄 적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우수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분쟁조정3국에는 분쟁조정, 영업행위감독, 민생침해대응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두루 경험한 김세모 전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을 최연소(1977년생)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특히 ‘여성 관리자’가 다수 기용된 것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본부, 지원, 해외사무소, 대외파견 등 전 영역에 걸쳐 업무능력이 뛰어난 여성 부서장을 전면 배치했다. 김은순 회계감독국 국장, 정은정 은행검사3국장, 장영심 회계감독2국장, 김효희 인천지원장, 박정은 런던사무소장, 문재희 파견협력관 등 6명이다. 그간 비서실장이 담당해온 비서실 업무를 비서팀장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비서팀장(임잔디 팀장)이 기용됐다.

/허정원 기자 zelkova@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지배구조 전면개혁 예고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회복방안 설명 주식 액면분할, 자사주 소각 등 시행 최윤범 회장 독단적 경영 문제 지적

고려아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내년 1월 23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재구성 성공할 경우 주주들의 가치 회복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최윤범 회장 체제 출범 이후 고려아연의 주주 가치가 지속 하락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MBK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대해 설명했다. 이날 MBK는 전체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 주식 액면분할, 자사주 전량 소각,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 소수주주 추천 등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고려아연 주주 가치가 하락한 것은 숫자로 증명된다”며 “3~4년간 기업 지배구조가 나빠져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자체 계산 결과 총 주주 수익률이 2021년 32%에서 2022년 15%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5%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MBK가 계산한 총 주주 수익률은 기간 말 주가(주당 배당가액 포함)에서 기

간 초주가를 뺀 값을 기간 초주가로 나누는 값이다.

MBK는 최 회장이 이그니오흐olding 인수, 원아시아파트너스(중학교 동창사모펀드) 등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불투명한 투자를 취임 후 약 38건(1조3000억원) 집행했다면서 최 회장의 독단적 경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 공개대수 과정에서 차입한 대출금 9000억원을 포함해 고려아연의 최근 5년간 기업가치 훼손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BK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위해 집행임원제 도입을 통한 감독형 이사회를 구축하고, 주주환원 및 참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이사회에는 최윤범 회장 측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BK는 주주환원 방안으로 ▲주식 액면분할을 통한 거래 유동성 증대 ▲보유 자사주의 전량 소각 ▲배당정책 공시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주주 참여 방안으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 중 선임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주주권의 보호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김 부회장은 “원아시아펀드 출자와 이그니오흐olding 투자와 같이 무분별하고 검증 안된 투자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 회장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려아연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업하기 어려울 때 중소기업 ombudsman

규제·애로신고 osmb.go.kr

탄핵정국 혼란에 '실손보험 개혁안' 좌초 위기

병원협,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보험개혁 실손보험 개선방안 안전
비급여 관리 빠진 반쪽 회의 우려
연내 개혁안 발표 가능성 불투명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운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확실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

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서는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운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오른쪽)과 다코타 스미스 호퍼 공동 창립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HTS 업무제휴 협약 체결

우리카드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호퍼(Hopper)'의 운영사인 HTS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완식 사장과 다코타 스미스(Dakota Smith) 호퍼 공동 창립자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제휴 계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행 플랫폼 개발을 도모한다.

HTS가 보유한 공급망과 여행서비스 기술력을 활용한다. 전 세계 항공권과 숙박 정보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수익성 높은 핀테크 상품개발을 예고했다.

하나카드 CCM 3회연속 획득

하나카드가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을 3회 연속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심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의 CCM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전사적으로 CCM 관련 성과 지표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널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소리(VOC)를 별도로 관리한다.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신한카드 싱가포르서 결제시 캐시백·경품 증정

신한카드가 '윈터 홀리데이 인 싱가포르! 신한카드 들고 고고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한마스터카드로 싱가포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합산 이용금액의 10%를 돌려준다. 내년 2월 28일까지 이용분이 대상이다. 합산 이용금액 최소 기준은 10만원, 캐시백 최대 금액은 3만원까지다.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리모와 캐빈 트루스트 캐리어를 지급한다. 이어 150만원 이상인 고객은 애플 아이패드 프로를 제공한다.

오는 27일까지 오차드 로드 마스터카드 리워드 제휴 쇼핑물에서 쇼핑 바우처를 제공한다. 신한 마스터카드 300싱가포르달러 이상 결제하면 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연임? 새 회장?... 관심 집중

現 회장 임기 2개월 남짓 남아
업황 악화 속 회장 역할론 대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사진)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연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선 회장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하는 등 진정성을 내비친 만큼 연임 분위기가 형성된다. 일각에선 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16일 오화경 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오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17일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오 회장은 광후섭 10대 회장과 이순우 17대 회장에 이어 3번째 민간 출신 중앙회장이다. 저축은행 출신으로는 광 전 회장에 이어 2번째다.

오 회장의 거취를 두고 저축은행권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



의 연임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출신으로 저축은행 실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업권의 목소리를 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 회장은 취임 당시 공약으로 연봉 50% 삭감을 내걸면서 진정성을 내비친 바 있다.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약 3년간 임금의 50%만 수령했다.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오 회장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검증된 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 회장은 HSBC은행을 시작으로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하나저축은행 대표직을 수행했

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의 운영 실태와 요구 사항을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선 저축은행 또한 대표 임기가 길어지는 추세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OK저축은행을 이끌고 있으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7년 임기를 시작해 장수 최고경영인(CEO)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장매투 폐퍼저축은행 대표는 올해로 임기 12년차를 맞이했다.

임기가 짧은 저축은행 또한 연달아 연임 카드를 빼들었다. 업황 악화에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정수 애규은 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8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 후 올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표들 사이에선 오 회장이 임금의 50%

아크로 리츠카운티 특공 경쟁률 251대 1

최소 8억 시세차익에 1.7만명 몰려

당첨만 되면 최소 8억원 시세차익으로 소위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 7000명이 넘게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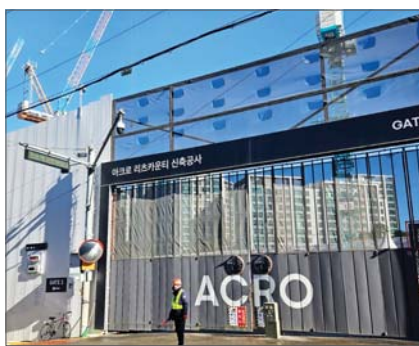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251대 1로 집계됐다. 69세대 모집에 1만 7349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8053명, 65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로 많지 않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고, 1km 내에서 방 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츠카운티' 신축공사 현장. /안상미 기자

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대형 쇼핑 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등 문화 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까지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규제 지역인 만큼 좋은 입지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났다.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3700만원 ▲59㎡ 16억7630만원 ▲75㎡ 20억 6600만원 ▲84㎡ 21억7120만원 ▲144㎡ 38억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올해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소 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철강업계, 인도시장 정조준... 불황 돌파구 연다

인도 철강수요 지속 증가 전망
포스코, 현대제철 등 현지 진출
“공급망 다변화하는 계기 될 것”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및 건설 등 인프라 개발 부문의 꾸준한 성장으로 조강 소비량이 늘고 있는 인도를 타겟으로 삼아 반전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글로벌 철강 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인도 철강수요는 지난해 1억 2000만톤에서 오는 2030년 1억 9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수요 전망치는 3억 3000만톤이다.

현재 국내 철강 수요가 연평균 5000

만톤인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시장은 한국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시장 입지를 다지며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현지 자동차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강관 수요가 급증하고, 항만 등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철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2026년 일본, 2028년 독일을 누르고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도시화율이 36.4%로 세계 평균(57.3%) 대비 낮아 향후 인프라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그룹은 인도 1위 철강기업 JSW그룹과 철강, 배터리 소재,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산 5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짓는다. 이를 통해 중국, 베트남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JSW그룹과 함께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공동 투자, 기술 개발 등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합작 일관제철소의 자가공급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인도 푸네에 내년 3분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신규 철강 서비스센터(SSC)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인도시장에서 서북부 신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네SSC는 오는 2032년에 물량 23만톤

을 처리하는 대형 SSC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현대자동차의 HMI(Hyundai Motor India) 푸네공장향 차체 소재 공급 관리와 연계돼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 시장의 긍정적 전망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자 상대 판매와 현지 가전 부품사 판매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저가 중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국내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5%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의 인도 현지 진출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윌아이엠이 새로운 LG 엑스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LG전자 ‘LG 엑스붐’ 재단장

윌아이엠과 제품 방향성 설계

LG전자가 세계적인 뮤지션과 손잡고 무선 오디오 브랜드 ‘LG 엑스붐(xboom)’을 재단장한다.

LG전자는 합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멤버이자 사업가인 윌아이엠(will.i.am)에게 LG 엑스붐의 ‘새로운 경험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10일 밝혔다.

윌아이엠은 뛰어난 음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성한 저음 기반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사운드’라는 LG 엑스붐 오디오 제품의 사운드 방향성을 설계하고 음향 튜닝 작업 등을 진행한다. 분위기에 맞춰 변경 가능한 조명과 한 손에 잡히는 스트랩 등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석희 SK온 CEO “기술혁신 통해 전동화 시대 가속”

고려대 CEO 특강... 첫 공개 활동
“배터리 성능 개선 위한 R&D 집중”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SK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E 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 (예정된 미래, 함께 나아가자)를 주제로 진행한 CEO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연에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CEO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충현홀에서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SK온

들어가는 교육 혁신의 장인 SK미래관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SK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SK온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개발, 매년 매출 2배 성장 등 최고의 기록을 달성해왔다”라며 “미래 성장 목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동화 시대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동화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기술 기반 제조업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온은 지난 5일 임원 인사를 통해 피승호 SK실트론 제조·개발본부장을 제조총괄로 선임했다. 피 총괄은 SK하이닉스에서 플래시공정T팀장, 연구개발(R&D) 공정담당을 지낸 제조 전문가다. /차현정 기자

발(R&D) 공정담당을 지낸 제조 전문가다.

이 CEO 역시 기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CEO를 지낸 바 있다. 현대전자, 미국 인텔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지난 2010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 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8년 SK하이닉스 CEO에 이어 2023년부터 SK온 CEO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SK온은 지난 7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CEO 특강 등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 카이스트, UNIST, 성균관대, 한양대 등 배터리계약학과를 통해 석·박사를 양성하고, 연세대한양대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R&D 부문 인재는 상시 채용 중이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홀딩스, 호주 리튬 공급망 확보

한국 업무협약... 年 3만 톤 규모 사업 추진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광산기업 헨콕(Hancock Prospecting)과 손잡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9일 호주 광산기업 헨콕과 리튬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헨콕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투자금액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헨콕이 보유한 다양한 광산 자산과 연계해 미국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튬 광산, 염호에서부터 수산화리튬과 양



포스코홀딩스 이성원 리튬사업팀장(왼쪽부터), 헨콕 게리 코르테 CEO, 헨콕 대니얼 웨이드 사업개발 담당,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이 9일 리튬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그룹 리튬 밸류체인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부사장)은 “포스코홀딩스는 헨콕과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번 리튬 사업 협력에서도 최적의 사업구도를 검토해 좋은 결실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전선, 스웨덴 초고압 전력망 사업 수주

국영 전력청 계약... 1100억 규모

대한전선이 케이블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스웨덴 국영 전력청(Svenska kraftnat)과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도심을 관통하는 420kV(킬로볼트)급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약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톡홀름 내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스웨덴 전력청이 수년간 추진해 온 핵심 사업으로, 스톡홀름 북쪽의 안네베르크(Annabergr) 지역과 남쪽의 스킨스톨(Skinsstull) 지역을 420kV 초고압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대한전선은 420kV급의 케이블과 전력기기 등 관련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와 준공 시험 등을 수행한다. /차현정 기자

420kV 전력망은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지중 교류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된다. 대한전선은 기술력과 품질, 엔지니어링 역량,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수주를 통해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과 아시아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확보하게 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 까다로운 시장으로 손꼽히는 스웨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전력망 수요 확대가 지속 예상되는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SK에너지 산재예방 캠페인 전개

SK에너지가 안전보건공단,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와 함께 ‘색으로 산재를 잡자’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SK에너지의 대표 생산현장인 SK 울산CLX는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현장 구성원들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적용가능한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해 11월부터 동력공장에 안전 디자인을 우선 적용했다.

SK 울산CLX 동력공장은 정유·석유화학 공장 운전에는 필수인 스팀을 생산·공급하며, 고온·고압으로 운전되고 배관 등 구조물이 많아 안전 디자인을 적용하기에 최적적이다. SK 울산CLX는 우선 동력공장 내 구성원 이동통로, 대피로, 계단, 경계석 등에 안전 디자인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

“킬러로봇 현실화, 위기의 신호탄?”

국제 규제·윤리적 기준 마련 절실

빅테크·방산업체 군사 AI 협력

초지능 AI, 5~20년 내 등장 가능
노벨상 수상자들, 규제 필요성 제기
군사 AI 규제, 미온적 대응 등 우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쟁 무기에 활용될 만큼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자 노벨상 수상자들이 경고를 하고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AI 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지만 군사 AI 규제 등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글로벌 AI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군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AI 군사 무기가 작전 지휘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가져올 통제 불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방산업체와 AI 무기 개발 협력

1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해 방산업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다. 챗GPT로 유명한 오픈AI는 방산업체 안드루 인더스트리즈와 미군의 드론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오픈AI의 AI 모델을 이용해 드론 공격 위협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격추하는 안드루의 대(對) 무인항공기시스템(CUAS)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미국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도 최근 실드AI와 AI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오픈AI의 경쟁자로 꼽히는 AI 기업 앤스로픽은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손잡고 AI 모델 ‘클로드’를 미국 정보부와 국방부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타는 지난 4일 미국 국방 기관과 관련 민간 업체에 자사 AI 모델 라마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도 AI 방위 산업에 뛰어들 때는 글로벌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각국 정부들은 민간 AI 기업과 협력해 군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앞다퉈 도입하는 한편 국방 관련 첨단 무기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실제 AI 기반 무기는 각국 전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백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중심부의 전력 시설과 정유 공장을 정밀 타격했다.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 AI 드론은



지난 7월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의 최전방 인근 밀밭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15여단 소속 군인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정찰 드론을 띄우는 모습. /뉴시스



인공지능 학문 선구자인 조프리 힌턴 교수가 지난 10월 8일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했다. 사진은 힌턴 교수가 지난 6월 토론토 학술 회의서 발표하는 장면.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고 목표를 찾아내 자폭 공격에 나선다. 이스라엘군은 AI로 팔레스타인 주민과 무장 단체의 연관 가능성을 추정해 테러 의심자를 찾아내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도 인공지능(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년 내 실전 배치를 시작해 약 5년 뒤에는 AI 자주포 등 중화기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KAI)는 유·무인 전투기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AI 조종사’를 개발 중이며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지능 AI 등장 코앞… 군사용 AI 우려”

AI 기술이 실제 전투에도 도입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자 노벨 물리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10년 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이 통제불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에서 개최된 물리·화학·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개발 속도를 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

지능은 5~20년이면 개발 될 것”이라며 “(AI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안전성을 보다 일찍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힌턴 교수는 AI의 단기적 위협으로 ‘자율 살상 무기 체계(LAWS)’의 개발을 꼽았다. LAWS는 AI가 적을 스스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는 체계다. 이에 힌턴 교수는 AI가 군사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군사 AI 규제는 미온적인 것을 우려했다.

힌턴 교수는 “각국 정부는 LAWS와 관련해 규제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며 “유럽의 AI법은 AI의 군사적 활용을 제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이스라엘 등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군사 AI 규제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탑재된 무기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을 겨냥해 사살하는 ‘킬러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픈AI 내부에서도 회사가 군사용 AI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픈AI 일부 직원들은 최근 안드루와 체결한 군사용 인공지능(AI) 파트너십에 대해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다. 오픈AI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AI 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제공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 오픈AI는 지난 4일 안드루와의 협력 사실을 발표하며 AI 기술을 미군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를 겨냥하거나 다른 광범위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네이버웹툰, ‘AI 큐레이터’ 소비 다양성 확대

네이버웹툰이 10일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추천 기술 ‘AI 큐레이터’가 작품 소비 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이진웅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

AI 큐레이터는 웹툰·웹소설 콘텐츠

추천에 특화된 기술이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6월 앱 진입 시 나타나는 작품 노출 순서 기본값을 ‘인기순’ 정렬에서 ‘AI 큐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알아서 딱!’ 정렬로 바꿨다. 해당 기능은 대중적 인기와 상관없이 이용자 취향과 선호를 고려해 AI가 추천하는 작품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 추천 방식이 네이버웹툰 플랫폼 내 소비 다양성을 높여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알아서 딱!’으로 작품이 추천될 경우 다양한 기준에서 ‘시장 집중도(HHI)’가 감소했는데 HHI는 시장솔림 현상에 관한 지수다. 낮을수록 시장 솔림이 덜하다는 의미다. /김서현 기자 seoh@

성과주의·세대교체 혁신 강화

40대 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

현대차그룹 2024년 정기 임원인사 조직 체질개선·미래 전환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주의와 세대교체를 기조로 한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대규모 승진을 진행하기 보다 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40대 젊은 리더 비중을 확대하며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세대교체도 진행되는 분위기다. 올해 정기 임원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난해(12월 20일)보다 10여일 앞당겨 진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24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현대차 73명, 기아 43명, 현대모비스 20명 등 총 239명이 승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원인사(252명) 대비 승진 인원은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업별 성과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 경신에 기여도가 높은 인원들을 발탁 승진한 점이 주목된다. 최고재무책임자

(CFO)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재무 목표 초과 달성과 2030 전략 수립 등 성과를 창출한 이승조 전무와 IR담당 임원으로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전원 ‘A등급’ 획득 및 인도법인 IPO(기업공개) 성공 등 주요 성과를 견인한 구자용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아는 재경본부 내 요직과 미국판 매법인 재무총괄 등을 거친 김승준 상무가 전무 승진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보임됐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주도하며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한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이 태훈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모비스는 방산사업부문의 대규모 해외 수주 실적을 이끌어낸 디펜스솔루션사업부장 이정엽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디펜스솔루션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는 내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조직과 리더십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미래 사업 전환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육성 등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직무별 특화 AI로 기업 업무 변화 선도

SKT·SK C&C B2B 사업 혁신

SK텔레콤과 SK C&C가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B2B(기업간거래) 사업 혁신에 나선다. 인사·홍보·법무 등 직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시장 트렌드 예측 AI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SK C&C와 진행 중인 ‘엔터프라이즈 AT TF’가 ‘AIX사업부’로 정식 출범하고 AI B2B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발족된 엔터프라이즈 AT TF는 SK그룹 내 산재된 AI 역량을 집결해 AT(AI Transformation·AI 전환)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B2B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식 출범한 AIX사업부는 그룹의 공통 현안과 그룹

사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AT 사례를 발굴해 ▲에이닷 비즈(A. Biz) ▲AI마켓 인텔리전스 ▲통신 AI ▲제조 AI 등 4가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첫 시작으로 2025년 1월 SK텔레콤과 SK C&C 사내 구성원에게 에이닷 비즈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다.

에이닷 비즈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AI 에이전트로 회의 일정, 회의록·보고서 작성, 시장동향 요약, 지식 검색 등 일상 업무에서 활용도 높은 AI 기능과 ‘에이닷 비즈 프로’로 구성된다.

에이닷 비즈 프로는 ▲AI 서류 심사 등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HR 에이전트 ▲보도자료 작성, 부정뉴스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PR 에이전트 ▲법령·판례 검색 및 자료를 지원하는 법무 에이전트 등 직무별로 특화된 AI 기능이다. /구남영 기자

LGU+, ‘유플투빨’ 참여 700만건 돌파

멤버십 서비스 검색량 전년비 4배 ↑

LG유플러스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월 정기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빨’의 누적 참여 건수가 7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플투빨은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U+멤버십’ 앱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용건수 증가에 힘입어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포털에서 LG유플러스 멤버십 서비스 검색량은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달의 유플투빨 혜택은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외식 분야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파리바게뜨(케이크 최대 1만원 할인)·투썸플레이스(홀케이크 최대 15% 할인)·브레덴코(케이크 5000원 할인)·배스킨라빈스(케이크 최대 1만2000원 할인)·아웃백(최대 25% 할인)·피자헛(최대 55% 할인)·비발디파크(스키리프트 최대 60% 할인) 등 제휴사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온라인으로
정규 학사 학위 취득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교
- ✓ 글로벌 TOP100 6위
- ✓ 서비스품질지수 최다 1위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학생 수(16,802명)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최다 1위
사이버대학교 10년 연속 1위(총 18회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교 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4년 12월 01일(일) ~ 2025년 1월 16일(목)

입학
지원



건축도시건설공학부 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 /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마케팅학과 / 생산물류유통학과 /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 광고미디어학과 / 교육공학과 / 법·공무행정학과 /
보건행정학과 / 부동산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학과 /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 /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 /
뉴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예술문화디자인학과 / AI산업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 AI융합자유전공학부

입학문의 | 02.2290.0082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韓 증시, 게임사태 이후 글로벌 최하위... 개미 투매 부담”

야3당 자본시장 현안대응·현장점검
外人 다행히 공격적 이탈 모습 없어
작년 이어 내년 성장률 역대 낮아
기업투자 급감 가능성 ‘최대 리스크’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보이면서 수익률도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선제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날 3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 11명 등이 자본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거래소에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거부 사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강준현(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3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 주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전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2.78% 떨어진 2360.58에 마감했으며, 코스닥지수는 5.19% 폭락했다.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개미(개인투자자) ‘패닉셀(공포로 인한 투매)’ 현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황 브리핑을 맡은 김 센터장은 “계엄령 이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부담”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공격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반기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한국 포지션이 선제적으로 축소된 영향”이라고 짚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외국인인 4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약 903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계엄

령 선포 이전인 11월 말 대비 매도 강도가 약화됐다는 평가다.

더불어앞으로 경기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2.5%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2.2%까지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9%까지 낮아졌다”며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한 이후 성장률 1%대를 찍은 것은 작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은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다고,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찍힌다는 것은 굉장히 기록적”이라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도 보다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내수의 구조적 둔화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출 성과가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2025년에는 기업 투자 급감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 불투명, 한국의 정치불안 등이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한국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했던 사례는 IMF외환위기(1998~99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미중 무역분쟁(2018~19년) 등이 있다.

이후 백브리핑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예상했던 탄핵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투영되면서 코스닥에서도 개미 투매 현상으로 주가가 크게 빠졌다”며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을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증시는 돌아올 수 있다”고 정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 지난주 테슬라 5.8억달러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2기 트럼프 정책 직접적 수혜 기대감
자율주행 로보택시 신사업도 영향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수혜 기대 등으로 11월 미국 대선 이후 55% 넘게 급등한 테슬라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12월 3~12월 9일) 테슬라 주식을 5억877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4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389.79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15% 상승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나는 것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

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 선거 캠프에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기부하는 등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보택시 신사업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판매 둔화와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밴크오브아메리카(BOA)의 수석 애널리스트 존 머피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공장 방문 이후 테슬라가 핵심 전기차사업과 로보택시 출시,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2025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다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를 3억111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미국 대선 후 반도체 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은 오는 11일 발표될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전망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고공행진하는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병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결국 근원 서비스 CPI 상승세 완화가 중요하네, CPI 상승 기여도의 35%를 차지하는 자가 임대료 상승세가 완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지난달 장외채권금리 일제히 하락

금투협 ‘지난달 장외채권시장 동향’
한은·연준 기준금리 인하 영향

지난달 장외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07%로 전월 말 대비 20.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년

물(연 2.650%)과 10년물(연 2.751%) 금리도 각각 23.7bp, 24.1bp 내렸다.

국내 국채 금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으나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각각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특히 장기물의 금리 하락 폭이 확대

됐다. 금투협은 “월말 개최된 금통위에서 신(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짝짜 기준 금리 인하가 발표됐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월말 국내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하며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4조 8000억원 감소한 7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액은 국채와 금융채 등 순 발행액이 18조 7000억원 증가하면서 283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첫 획득

교보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2024년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첫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보증권은 인증평가에서 최고경영진의 소비자중심경영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기업문화 등에 평가를 받았다.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2024년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첫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보증권은 인증평가에서 최고경영진의 소비자중심경영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기업문화 등에 평가를 받았다. /교보증권

外人, 4개월 연속 증권 ‘팔고’ 채권 ‘사고’

금감원 ‘지난달 外人 증권투자 동향’
코스피 4.2조 매도, 코스닥 830억 매수

외국인이 4개월 연속으로 증권을 순매도, 채권은 순투자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통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난달 4조 2370억원을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830억원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외국인은 4개월째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보유잔액은 전월 대비 35조 2000억원 감소했다. 이들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지난 11월말 기준 693조 6000

억원어치로, 이는 시가총액의 27.4%에 해당한다.

미국이 279조 3000억원으로 선두였다. 전체 외국인의 40.3%를 차지했다. 유럽(214조 2000억원, 30.9%), 아시아(101조 원, 14.6%), 중동(11조 2000억원, 1.6%)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 채권 3조 259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 772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1조 487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액은 전월 대비 1조 1000억원 늘어난 270조 원이다. 보유량은 전체 상장 잔액의 10.4%를 차지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 결계기준)

구분	2023년	상반기		2024년	10월		보유잔액
		1~6월	7~9월		10월	11월	
주식	10,501	9,417	1,084	6,966	△ 4,388	△ 4,154	693,635
채권	13,562	13,329	233	19,705	6,627	1,487	270,016
합계	24,063	22,746	1,317	26,671	1,139	△ 2,667	963,651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금융감독원

中企 10곳 중 8곳 “내년 경영환경, 올해 비슷하거나 악화”

올 내수부진·비용상승에 ‘어려움’ 내년 전략은 긴축·신규판로 확대
상생금융·R&D지원이 정책 1순위
노동인구 감소, 중장기 최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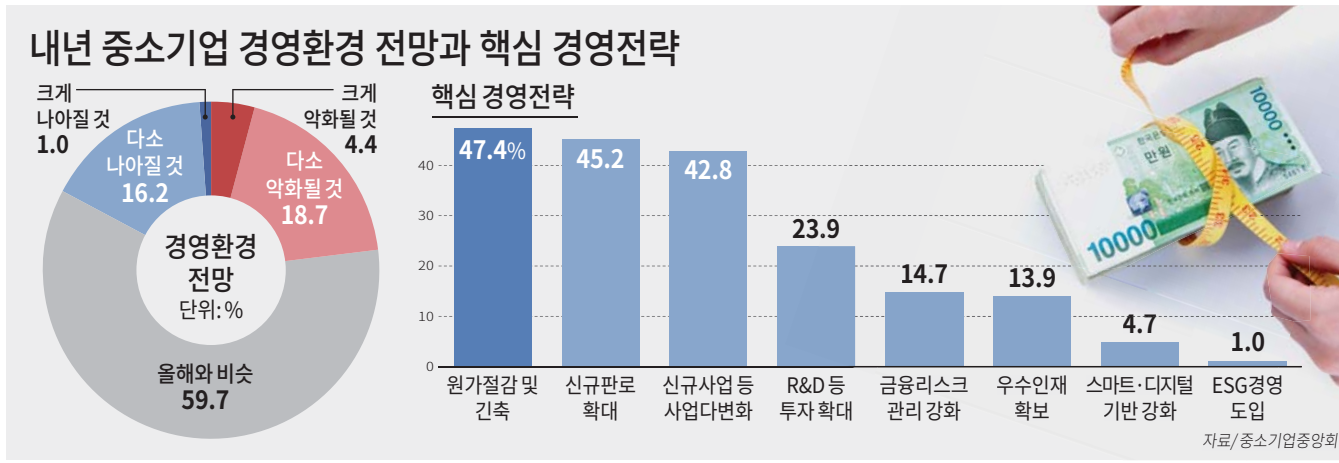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올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10곳 중 8곳 이상은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은 ‘원가절감 및 긴축’ 그리고 ‘신규 판로 확대’가 주를 이뤘다.

또 2025년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상생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절반(48.8%)은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렵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은 16.5%에 그쳐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인 견해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올해 경영년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판매 부진’ (74.4%)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 (29.3%), ‘인건비 상승’ (28.9%) 등의 순서였다.

올 한 해 동안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은 ‘거래선(영업·홍보) 확대’

(64%)에 가장 집중했다. 이외에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46.2%), ‘자금 조달처 확대’ (30.9%)에도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영환경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9.7%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였다. 그러나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복

수응답)으로는 ‘원가절감 및 긴축’이라고 답한 기업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규판로 확대’ (45.2%),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 (42.8%) 등의 순이었다.

내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 지원 확대’ (59.7%)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

(36.5%),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34.2%)가 뒤를 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불리해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27.0%) 이상이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다. 아울러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 (18.5%), ‘첨단 기술수준과의 격차 확대’ (15.5%)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내수부진이 중소기업 체감 경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모두 중소기업이 내수판매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절감, 신규판로 확대, 사업다변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꼽은 만큼 2025년 중소기업의 투자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금융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오영주, 탄핵 정국에도 中企 글로벌화 행보

(중기부장관)

제1차 한-UAE 중소벤처위 개최
페루 장관·대사와 협력 논의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핵 정국’ 등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본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은 이날 정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UAE 경제부와 ‘제1차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설립한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인 위원회에는 한국에선 오 장관 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 등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UAE에선 알리아 압둘 알 마즈루이(Alia Abdulla Al Mazrouei) 기업가정신 특임장관, 칼리파 펀드, 두바이 공항자유구역청, 에미레이츠 개발은행 등 양국에서 1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양측 장관은 양자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오 장관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답테크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올해 문을 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 대해 UAE측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오 장관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한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차 한-UAE 중소벤처공동위원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알리아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과 UAE간 경제협력을 위한 신뢰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한-UAE 중소·벤처 스타트업 분야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 51개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을 개최했다.

이들 참석자와 ‘글로벌 벤처투자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자회사인 파빌리온캐피탈, 세일즈포스 및 아랍코 등 글로벌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운용자산

(AUM) 1조원 이상의 유력 투자기관 10개사 이상이 함께 했다.

당초 간담회에는 오 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열리면서 중기부에선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오 장관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벤처캐피탈, 한국 정부 간의 협력이 본격화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 장관은 지난 9일엔 서울 영등포에서 페루 세르히오 곤잘레스 게레로(Sergio Gonzalez Guerrero) 생산부 장관,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대사 및 수행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韓 기업, CES 2025 혁신상 휩쓸어 총 129개 기업, 165개賞 수상 최다

작년 이어 올해도 최다 수상국
전체 참가기업 기준 44% 차지

내년 1월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주최측이 수여하는 CES 혁신상을 한국 기업이 휩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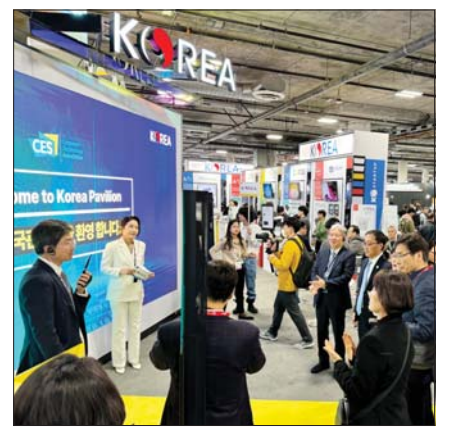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CES 주최사인 전미국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발표한 CES 2025 혁신상 1차 결과, 전 세계 수상기업 292개 중 129개가 한국 기업이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지원한 기업도 55개사가 73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 전체 결과는 내년 1월 7일 CES 전시회 개막일 발표된다. 최종 500여 개사가 수상할 전망이다.

CES 혁신상은 전 세계 혁신제품 중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그 해 첫 출시된 제품만 받을 수 있고, 세계 각지 100여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올해는 전례 없이 많은 3400개사가 신청한 반면, 선정 규모는 다소 줄어 경쟁은 훨씬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최다 수상국이다. 129개사가 165개 상을 받아 기업 수 기준 전체 44.2%, 혁신상 기준 46.1%를 차지한다. 코트라 분석 결과, 33개 카테고리 중 ▲핀테크(4개, 100%) ▲스포츠(3개, 100%) ▲인간안보(12개, 86%) ▲스마트시티(11개, 82%) ▲드론(4개, 67%) ▲메타버스(4개, 65%)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메인 카테고리인 ▲인공지능(24개, 65%) ▲디지털헬스(23개, 53%)에서도 우리 기업이 과반 이상 수상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 이어 미국(64개사), 중국(16개사), 일본(15개사) 순이다. CES 혁신상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



CES 2024 한국관 현장 /코트라

는 혁신기술기업에게 의미가 크다. 국제적인 공신력이 높아 제품의 기술성 입증 지표가 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지난 2021년부터 기업의 유력 레퍼런스가 되는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중이다.

CES 혁신상 수상기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코트라는 수상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1월 미국 CES 전시회에 대규모 통합한 국관(403개사)을 운영하고, 국내에서 CES 혁신상 지원사업을 여러 기관과 협업 추진한다. 이후 북유럽, 인베스트코리아, 인베스트코리아서밋 등 코트라 대표 연례 행사와 연계해 혁신상 기업을 위한 전시관, 상담관을 연중 조성할 방침이다. 또 혁신상 기업은 내년부터 코트라 수출바우처와 인베스트코리아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시 참가 우대를 부여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CES 혁신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단순히 수상으로 끝나지 않고, 수출과 해외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

기보, 디지털 감사 전문성 강화...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내부 감사인 자격취득 지원 결실

기술보증기금이 디지털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디지털 감사 전

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감사인의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한 결과 감사실 직원이 ‘국제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자격증을 취득했다.

CISA는 국제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협회(ISACA)에서 공인하는 세계적인

로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정보시스템 감사·통제 및 보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부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평가하며 정보보안 및 IT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검증받는 기준으로 취득 과정이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김승호 기자

‘AI자율제조’ 전문기업 30곳 찾는다 2027년까지 200개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AI·로봇 전문기업 지원
‘AI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 참여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2026년부터 제조현장서 적용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AI 전문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특히 AI와 로봇 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대 1 미팅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해 작성할 예정이며, 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된다.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 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해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6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예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등 제조업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향후 선정되는 선도 프로젝트에는 전문기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되며, AI 전문기업들은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AI 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AI 전문기업들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제조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한다.

산업부와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은 올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20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이번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등을 수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AI 자율제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며 “AI 자율제조 성공적 확산과 AI 전문기업의 기술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자카르타 지반 침하, 방조제로 해결 모색

농어촌공사, 인니 홍수·침몰 해결 나서
까리안담 오는 2026년 3월 준공 예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우리나라의 팔당댐과 비슷한 규모의 ‘까리안담’이 자리 잡고 있다. 자카르타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젓줄’로 불리는 이 다목적댐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2만3000헥타르(ha)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높이 65.6m, 길이 516m에 이르는 까리안담은 총저수용량이 3억 1500만톤(t)에 달하며,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까리안담 건설 현장에서는 주요 시설의 준공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댐 본체 시공은 약 98%가 완료돼 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용수 공급 시설인 짜우야터널은 최종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총사업비 3억3700만 달러(약 4380억원)가 투입된 이 다목적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 형태로 지원됐으며,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자카르타 서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홍수 조절, 전력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목적댐 설계 검토, 입찰 지원, 공사 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텐주 지역에 위치한 까리안 다목적댐 전경. /김대환 기자

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을 총괄하는 최낙원 농어촌공사 까리안담사업소 단장은 “댐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35개국에서 169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술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해

외 기술지원 사업의 시작은 베트남 주월 농업사절단 파견(1967년)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후 대부분의 사업은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983년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사업 발굴과 수주, 정부 정책 사업 지원, 농업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기업등록청에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공공주택사업부로부터 건설 분야 기술 용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관개시설, 농업 개발, 습지 개발, 지하수 관리, 마을 개발, 홍수 조절, 댐 설계 및 감리, 관개 현대화, 개보수 등 총 60개 사업을 수행하며, 약 11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이 모이는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지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자카르타의 침수위험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주민과 소통

환경부, 부산지역 주민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1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지역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한다. 최승현 부산대학교 교수 주재로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청취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정산, 백양산 및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해 사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총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기암과 습지 등 60곳의 자연경관 자원이 확인됐다.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지방지정문화유산 등 총 105점의 문화자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 및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및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부산·경남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주요 광역도시권은 모두 국립공원을 보유하게 된다”며 “부산시민, 경남도민이 원하는 국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럼피스킨 방역 미흡 농가에 ‘처벌 강화’

농식품부, 보상금 삭감·과태료 부과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최근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21호 농가에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백신 미접종을 비롯해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이다.

1~23번째 사례 가운데 백신접종 명령 위반이 7건이었다. 또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기 미설치 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 1건, 소독설비 미설치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 곤충(감염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축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살상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다중시설 실내·외 공기질 정보 활용 확대

환경부,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정부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를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초미세먼지

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해 개인의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도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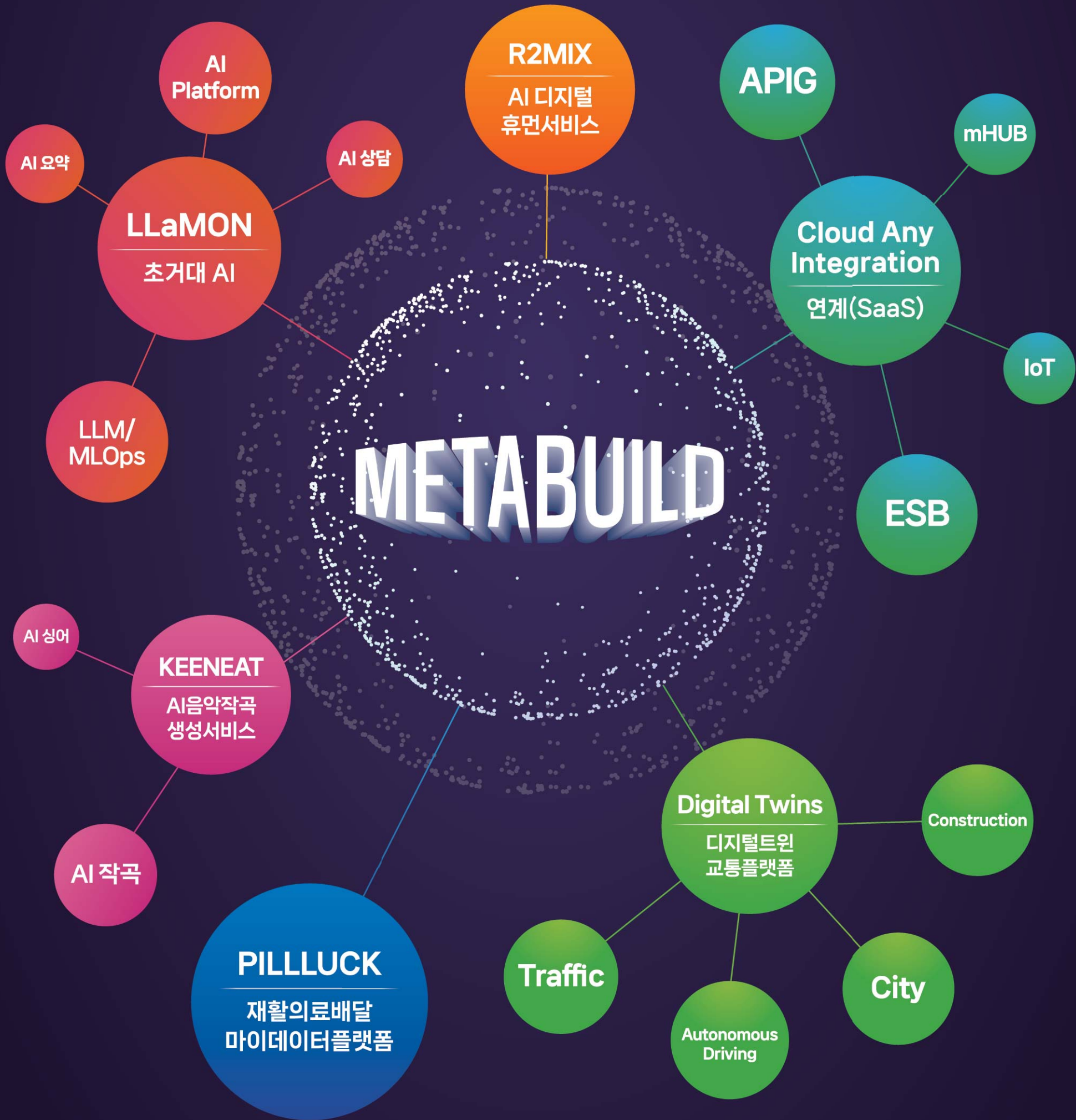
/세종=김대환 기자 kdh@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포항시, 350억 투입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본격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 속도
발전협의회 통해 지자체와 논의



포항시는 9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바이오 특화단지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포항시는 지난 9일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내 바이오 특화단지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혁신 거점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경북도의원 및 포항시의원, 산학연 기관장, 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을 축하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자되며, 연면적 5700㎡로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및 시생산 지원 장비 구축 ▲기업

입주 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기업의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항에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로 지역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의 정책 방향을 지자체와 논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경북, 강원, 전북, 충남, 경남 5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장, 학계,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항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협의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우수 기업 소개 및 제품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그린바

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5개 지자체 간 협력 MOU가 진행됐으며, 2025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 포항의 미드바르 서충모 대표의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성공 스토리에 대한 기초 강연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계획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를 발판 삼아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에 내년 경북 포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3회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3년으로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2018년 처음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아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재인증에 성공했다.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상공회의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9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겨울철을 맞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상공회의소 임직원 25명이 참여했으며,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나주영 회장은 “추운 겨울, 연탄의 온기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창원시

‘10대 뉴스 선정’ 온라인 투표

창원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4년 창원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연말 ‘창원시정 10대 뉴스’ 설문 조사는 한 해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창원을 빛낸 주요 정책 후보는 30개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새로운 50년 대전환 시작 ▲마산 재도약 발판 마련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활성화 ▲원기대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안정적 정착 등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김천시

오는 19일 청소년 테마파크 개장

경북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

10일 김천시에 따르면 울곡동 일원 299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한 청소년 테마파크는 오는 19일 정식 개장한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돼 국비 45억원 등 총 160억원이 투입됐다.

실내 스포츠 어드벤처 시설이다. 실내서핑, 짚코스터, 버티컬 슬라이드, 핀클라임, 트랩폴링, 범퍼카 등 총 37종의 유아·어린이·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김천(경북)=김시훈 기자 silim53@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800억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시중 은행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맞손’
2년간 보증재원 출연금 등 투입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내년부터 2년간 총 1800억원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참여기관은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향후 2

년간 보증재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참여 은행은 특별출연과 함께,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소재 미소금융법인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 자금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폐업자 대상 개인보증 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자금 지원이 우리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타민이 돼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남해·산청·거창군, 농촌 관광객 유치 도모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선정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공모에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다양해지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 공동체, 여행 전문가, 예술가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협력해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로 농촌 지

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전국 20곳 가운데 경남에서는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3곳이 선정됐다.

개소당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며 3개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등과 민간 여행사가 협약해 농촌특화 테마 상품 개발부터 홍보와 운영까지 협업하게 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함평 빛축제.

“이번 연말은 전남에서 겨울축제 즐겨요”

함평, 신안, 담양 등서 이색 축제 열려

연말연시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겨울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넘이 해맞이 경관 등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

서 진행되는 ‘함평 겨울밤 빛 축제’에선 미디어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신안에선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축제’가 열린다.

담양에선 24~25일 담양읍 중앙로를 차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의 만남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야경 포토존과 지역 특산물 활용 먹거리 판매 공간을 통해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시-경북 잇는 ‘대경선’ 오는 14일 개통

구미~대구 간 30분 소요

경북과 대구지역의 교통망 혁신을 이끌 대경선이 14일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상북도 8개 시군과 대구시를 아우르는 공동생활권 시대가 본격 열릴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경선은 8개 역(구미, 사곡, 북삼(2025년 말), 외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연장 61.85km로 광역 간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철도 운행은 출·퇴근 시간 19분, 그 외 25분 간격으로 오전 5시부터 자정

까지 편도 48~52회(양방 100회) 운행한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총 18량을 보유해 한 번에 296명의 수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과 통학생 등의 이동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 개통과 함께 버스·도시철도·대경선 간 광역 환승이 확대된다.

기존 대구·영천·경산의 3개 지자체 간 환승에 더해 김천·구미·청도·고령·성주·칠곡의 6개 시군이 추가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저출산 위기 속... 유업계, 분유·가공유 수출 돌파구 마련

롯데웰푸드 베트남 수출액 82% ↑
매일유업 중국으로 분유 수출 확대
남양유업 캄보디아 등 신흥시장 공략
연세유업 멸균 가공유 해외 진출

국내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분유와 우유 매출이 줄어들자 유가공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분유와 가공유 수출에 힘쓰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4651억원 규모였던 현 우유 매출은 지난해 2조1531억원으로 12.6% 감소했다. 1인당 우유 소비량도 10년 새 감소했다. 낙농진흥회 우유소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8.1kg을 기록했던 1인 우유 소비량은 2022년 26.2kg을 기록했다. 6.8% 감소한 것이다. 분유 시장 규모 역시 2017년 4314억원에서 2022년 2897억원으로 약 33% 감소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해외 분유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현재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에 거점을 두고 '뉴본(Nubone)' 분유를 수출하고 있다. 뉴본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과정에 따른 단계별 제품을 제안하는 브랜드다. 현지 상황에 맞는 과학적 영양 설계가 바탕인 '뉴본 1, 2단계'와 어린이 체중 증가에 중점을 둔



롯데웰푸드의 베트남 우수 거래처가 롯데웰푸드의 횡성 공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뉴본 플러스' 등 다양한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현재는 말레이시아까지 유통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0월 뉴본의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2%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롯데웰푸드 측은 "한국산 분유의 품질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베트남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2개 공장서 중국 수출용 분유를 제조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존 평택공장 외에 아산공장이 중국에 분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2공장 허가를 받은 것이다.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

장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공장당 3개 브랜드만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브랜드는 '애사락명작' '매일궁' '우항항렬' '안송' '애폐송'이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해외 매출액은 477억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2022년에는 370억원, 지난해에는 455억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줄었던 분유 수출이 회복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술력과 품질 좋은 프리미엄 유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로를 모색해 신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특수분유) 등에 분유를 수출하고 있다. 남양유

업에 따르면 분유 전체 수출액은 지속 증가해 2016년 500억원을 넘겼으나 사드 사태와 한한령 등으로 2020년 240억 원까지 감소, 현재는 한한령 해제와 캄보디아 같은 신흥시장에서 선방해 지난해 기준 300억원까지 매출을 회복했다. 수출 물량은 전체 분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 분유 수출량은 지난해 2014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캄보디아 전체 분유 수출물량의 80~90%가 남양유업 수출 실적에 해당한다.

남양유업은 투트랙 브랜드 전략으로 캄보디아 시장을 점수했다. 스테디셀러 제품인 '임페리얼XO'와 함께 현지 소비자를 위한 캄보디아 전용 분유제품 '스타그로우'를 론칭해 제품을 운영하고

다. 또 수입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한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연세유업은 멸균 가공유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 연세유업은 지난 5월 중국에 멸균 가공유 제품 수출을 시작으로 8월에 대만, 11월에는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호주, 홍콩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했다.

국내 유업계가 수입 멸균우유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세유업은 국산 원유의 우수성과 가치를 해외 시장에 알리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10월 중국에서 판매된 연세유업 멸균 가공유의 누적 판매량은 약 300만팩에 달하며, 지난 한 달간 전체 수출 국가에서 판매된 멸균 가공유 판매량은 100만팩을 기록했다.

연세유업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간당 4만팩의 멸균 제품을 생산하는 '테트라팩 E3' 장비를 도입했고 기존 4개 멸균 라인을 6개로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국내 분유·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해외 국가에서 품질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I '메타덱스'로 모바일식권 보안 강화

식신e식권, 지능형 결제 시스템 고도화
타임 아웃 문제 해소·성능 개선
결제 이상 탐지부터 데이터 분석



식신e식권이 지능형결제를 고도화했다. /식신

푸드테크기업 식신은 자사 LLM(초거대언어모델) 기반 AI 솔루션인 '메타덱스'를 적용해 '식신e식권'의 지능형 결제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개발이 완료된 AI 솔루션 '메타덱스'를 식신의 모바일식권 서비스에 적용해 상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이용 행태를 분석,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결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능형 결제'를 한단계 업그레이

드하여 타임 아웃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였다.

메타덱스는 LLM 기반 AI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는 모바일식권 결제 데이터로, 메타덱스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 및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지능화시키고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식신은 모바일식권 서비스 전체에도 메타덱스를 기반으로 한 효율화

작업에 나선다. 특히 구내식당 솔루션인 FS솔루션이 대상이 된다. 식권 결제, 매출 현황 및 매출 조회, 정산, 예약 관리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인적 리소스를 현재보다 더욱 절감하여 케이터링에 꼭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용자 및 계약 식당의 결제 데이터 학습 및 분석에서도 본 플랫폼을 활용한 AI기법 적용을 이어갈 예정이다.

식신 안병익 대표는 "메타덱스 플랫폼을 활용해 지속적인 서비스 성능 개선과 보안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신은 국내 1위 모바일식권인 '식신e식권' 및 맛집 추천 서비스인 '식신'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원선 기자

"전시 끝난 크리스마스 트리, 숲으로 떠나요"

현대백 "지속 가능한 가치 전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전경.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송도점·스페이스원·대전점 4개 점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를 내년 봄 주요 공원과 도심 숲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시즌 인태리에는 친환경을 주제로 조성됐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중앙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트리팜'에는 플라스틱 대신 전나무 생목이 사용됐다.

이 트리는 오는 2025년 1월 15일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뒤 검수를 거쳐 내년 봄 공원과 도심 숲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 활동은 '그린 크리스마스'로 의미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현대백화점 측 설명이다. 본래 눈

이 내리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그린 크리스마스'는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농장에서 자란 트리 나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숲을 이루는 뜻깊은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현대그린푸드, 해외 단체급식서 한식 대중화 가속

aT 협업으로 해외 판로 확대

현대그린푸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손잡고 해외 단체급식 사업장에 한식을 접목한 'K단체급식' 메뉴를 확대해 선보인다. 자사 HMR(가정간편식)과 중소 식품업체의 식재료,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K단체급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식단 편성을 늘려 K푸드의 해외 판로 확대와 대중화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

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aT와 '해외 단체급식 연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K단체급식 대중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T의 'K푸드 수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양측은 해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K푸드 메뉴 제공을 확대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K푸드 및 식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미국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HMR 제품과 중소 협력사의 식재료를 활용해 K단체급식 메뉴를 제공하는 'K-푸드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그린푸드는 떡볶이와 고자, 김말이를 제공하는 분식 메뉴를 비롯해 한국식 잡채를 활용한 잡채밥을 선보였으며, 볶음김치를 활용한 햄버거와 부리또, 불고기 피자 등 한식을 활용한 퓨전 메뉴도 함께 제공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복지 플랫폼 제휴 확대 나선다

베네피아와 사업 시너지 극대화

SSG닷컴이 SK엔터서비스가 운영하는 기업 복지 플랫폼 '베네피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제휴 마케팅 채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베네피아는 약 3700개 고객사의 130만여명 임직원이 다양한 제휴처에서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대표 직장인 복지 플랫폼이다. 임직원들은 복지 포인트 형태

로 제공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제휴는 양사 간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SSG닷컴은 구매력이 검증된 베네피아 제휴사 임직원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베네피아 고객들은 신선식품부터 명품까지 SSG닷컴에서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상품을 복지 포인트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안재선 기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경쟁 치열

(장내 미생물)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 쏟아져

제약·바이오업계, 임상 등 역량 집중

CJ바사 400억 유상증자 결정
셀트리온 바이오미 지분투자 계약
셀바이오텍 ‘PP-P8’ 임상 속도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기반 신약 후보물질 임상이 활발해질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바이오 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9일 총 400억원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만119원으로, 이번 증자 주식수는 395만2960주다. CJ바이오사이언스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CJ제일제당이 모든 주식을 받게 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신약개발에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개발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한 협업을 맺었다.

셀트리온은 국내 미생물 생균 치료제 개발 기업 바이오미와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BM111’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미가 보유하고 있는 BM111은 4종류의 미생물을 조합한 ‘생균 치료제’다. 양사는 다제내성균감염증 치료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향후 결과에 따라 신약에 대한 권리나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메디톡스의 신약개발 전문 기업 리비움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을 적용해 희귀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리비움은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난치성 면역질환인 염증성장질환 치료제 ‘LIV001’ 유럽 임상 1b상 승인을 받았다.

LIV001은 국내 최초 유전자 재조합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다. 면역 조절에 효능을 갖춘 유전자를 미생물에 도입해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여 준다.

‘K유산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셀바이오텍은 올해 3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장암 신약 ‘PP-P8’의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PP-P8은 한국산 유산균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다. 셀바이오텍은 PP-P8 임상 1상을 통해 중증 단계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약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 속한 기업들 외에도 기능성 식품이나 배양 기술 등으로 시설을 구축해 왔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발효과학이나 유산균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익숙한 범주이기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다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글로벌 마케팅전략 고도화

머서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 개최

SK바이오팜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은 SK바이오팜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과 전략을 각국 파트너사와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을 비롯해 유럽, 캐나다, 중남미 등 전 세계 8개 파트너사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의 매튜 링케워 치마케팅 센터장, 수니타 미스라 임상개발 부사장, 루이스 페라리리요 부문 부사장 등이 연자로

나서며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성장세, 핵심 마케팅 전략, 최근 임상 연구 결과 등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뇌전증 치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세노바메이트가 오는 2029년 연 매출 10억달러를 돌파하는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우수한 발작성전소실률(11~21%)과 안전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장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올리브영, ‘오징어 게임 시즌2’ 한정판 제작

이달 말 9개국 동시 출시 예정

CJ올리브영이 자체 브랜드 브링그린, 웨이크메이크 등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드라마 인기 요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능성 비건 브랜드 ‘브링그린’은 드라마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영감을 받았다. 캐릭터 영희가 피부 트러블을 포착한 순간 완벽하게 조준해 제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도 오징어게임을 상징하는 색감을 표현한 블러디 로즈를 담아낸 ‘소프트 아이 팔레트’, 레이저를 쏘는 영희의 선명한 눈매를 완성할 ‘철벽 펜 아이라이너’



‘오징어 게임 시즌2’ 한정판 제품. /CJ올리브영

등을 내놓는다. 올리브영은 브랜드 대표 제품인 ‘티트리’ 상품군의 주요 효능을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오는 12월 말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9개국에서 이번 한정판 제품들을 동시 출시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ISS·GL, 박재현 해임 반대”

임시주총 4개 안건 모두 반대 입장
“현재 경영진 충분한 역량 갖춰”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GL)가 해당 임시 주총의 4개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 개최는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것으로,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그룹내 경영권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그룹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체

제 및 관리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경한 방침으로 그룹 전체를 점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지속 밝혀 왔다.

다만, ISS는 지난 5일(EST) 발표한 보고서 통해 “지난 2년간 한미약품이 매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을 고려할 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등의 부실 경영을 주장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 해임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박재현 대표를 비롯한 두 명의 현직 이사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루이스도 현재의 경영진이야말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많다는 의견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특히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 남병호 사외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 4명은 올해 6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함께 선임됐다.

이후 임종윤 사내이사는 목표했던 한미약품 대표이사에는 오르지 못했고, 형제 측을 지지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으로 돌아서며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근거 불충분’이라는 동일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약품의 미래 가치와 경영 안정이 달린 이번 사안에 대해 주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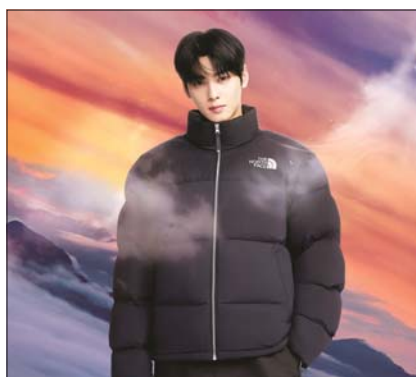
12년 연속 패션부문 1위 차지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에서 발표한 ‘2024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12년 연속 패션 부문 1위 자리를 지켰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약 230개 부문에서 선정된 대표 브랜드 1000여 개를 대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된다. 평가는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에서 모

의 주식 거래를 통해 산출한 ‘브랜드 주가지수’(70%)와 소비자 설문 결과를 반영한 ‘소비자 지수’(30%)를 합산한 비에스티아이(BSTI) 점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멈추지 않는 탐험’이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다양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선보임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것이 좋은 평가 요인이 됐다는 게 노스페이스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겨울 시즌에는 ‘클라우드 눅시 다운 재킷’을 비롯해, 짧은 기장에 은은한 광택



클라우드 눅시 다운 재킷 /노스페이스

감을 더한 ‘여성용 노벨티 눅시 다운 재킷’ 등 30여 가지 이상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 세럼 튜브’ 출시

사이레드 등 4가지 색상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레티놀 볼륨 립 세럼 튜브’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을 튜브 형태로 추가 구성한 것으로, 양 조절, 휴대성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레티놀 볼륨 립 세럼 제품은 ‘레티놀’ 성분을 입술용 제품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의학연구센터를 통해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직후 입술 수분 볼륨이 7.

8%, 4주 사용 후에는 15.7%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탄력있는 입술을 표현하고 풍부한 수분을 구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또 밀도 높은 젤 제형이 밀착력까지 갖춰 입술에 윤기를 더한다. 색상은 총 4가지인데, 차가운 빨강 계열의 ‘사이레드’, ‘스카이 코랄’, 자연스러운 분홍 빛인 ‘로지’, 투명해 입술 본연의 광채를 살릴 수 있는 ‘베어’ 등으로 다양하다.

아모레퍼시픽은 ‘레티놀 볼륨 립 세럼 튜브’를 아모레몰,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카카오, SSG닷컴 등 주요 e커머스 채널과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인터파크 바로가기

★ 아무리 곱씹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마원동 오 브라더스



2022.12.01 ~ OPENRUN | 대학로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3관

원작 김호연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 홍현우 | 각색 홍루현 | 음악감독 김은지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출연진 김찰리 이동구 임현준 신정만 맹상열 김현 오치운 강대수 김록현 김민국 김재언 양현석 박창희 한병수 김도연 이세미 이승우

제작 극단자우 | 기획 J 제이엘컴퍼니 B(주)브라더후드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워터폴스토리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332-4902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협업한 기관 중 지원성과가 우수한 15개 기업, 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대전본부에서 진행된 감사패 수여식에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카카오, 코레일유통, 현대이제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천본부세관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소진공



HDC현대산업개발, 노원구 어르신에 쌀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연말 릴레이로 진행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의 일환으로 서울시 노원구 어르신들께 식료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전달식은 지난 9일 미성노인정, 삼미노인정, 서광노인정, 월촌노인정 등 노원구 일대 노인정 대표단과 신왕성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계서영고층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한진, 미래에너지 관련 교육도서 제작 봉사활동
한진이 ESG경영 추가 실천에 나섰다. 한진은 지난 7~9월간 자체적으로 진행한 '미래의 주인공, '원클릭'으로 응원하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관련 교육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왼쪽 두 번째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 노삼석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동아제약,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유지
동아제약은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8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1년 최초 인증 이후 2년마다 재평가를 통과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컨슈머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기업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동아제약



롯데렌탈,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 획득
롯데렌탈이 2024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롯데렌탈

당근, 동네 사장님 성장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당근 사장님 변영회 캠페인
광고지원금 지급, 세미나 운영



지역생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이 동네 사장님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당근 사장님 변영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위 이미지는 당근이 개그우먼 이수지가 출연한 캠페인 영상. /당근

지역 생활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이 동네 사장님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당근 사장님 변영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당근은 '도전! 변영 지원금 최대 5만원', '사장님 변영회 온오프라인 총회', '총 1500만원 소원 성취 상여금' 등 총 세 가지 이벤트를 마련했다. 당근을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페이지에서 '변영회 오픈 기념 5000원 먼저 받기' 버튼을 누르면 광고지원금이 즉시 지급된다. 이후 하단의 '교육 듣고 변영 지원금 받기' 버튼을 누른 후 모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퀴즈와 미션을 완료하면 4만5000원의 광고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교육은 '당근비즈니스 성공 전략', '인기 소식의 비밀', '당근 광고 3계명'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미션을 모두 완료한 사장님 1000명

을 추첨해 한정판 달력도 제공한다. 이달 중순에는 실제 당근을 사용하는 사장님들의 성공 비법을 들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는 18일에는 당근비즈니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 당근 동네 사장님 어워즈' 수상 사장님이 직접 당근 홍보의 성공 방정식을 전한다. 오는 20일에는 요식업,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광고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현장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왼쪽 다섯번째)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 CEO가 '영웅 해양경찰'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오일

에스오일, 해양경찰 후원활동 지속

'2024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 8명에 상패·상금 9000만원 수여

에스오일이 해양경찰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스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양경찰청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2024년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하고 영웅 해양경찰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에스오일은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한승만 경장(군산해양경찰서)에게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시상했다. 또 권오민 순경(보령해양경찰구조대) 등 '영웅 해양경찰' 7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한승만 경장은 지난 9월, 군산 십이동 파도 인근 해상에서 8명이 승선한 35톤 어선의 조난 현장에 출동하여 선원을 구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근로복지공, 지속가능경영 공로 인정 받아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10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국민서비스

의 품질 향상 ▲탄소 감축 이행 ▲상생협력 실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 등 지속가능경영 전 부문에 걸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우리나라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에는 적용 직종 추가 확대 등을 통해 19만명의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호망에 편입시켰다.

/김대환 기자 kdh@

이양선 한신대 교수, 중기부장관 표창

중소 연구인력 지원사업 유공자 포상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RnD 산업인턴사업단장인 이양선(AI·S W대학) 교수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호텔 나루 서울 엠밸리에서 열린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유공자 포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우수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연구·지원인력의 격려와 자긍심 고취, 성과발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양선 단장은 지역중소기업 RnD 산업인턴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학협력 연구인턴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현진 기자 lhj@

스타벅스,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선정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스타벅스 코리아가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

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한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 및 운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이름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효성, 마포구 취약계층 겨울나기 도와

사랑의 김장김치·쌀 전달

효성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효성은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와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효성이 이번에 전달한 김장 김치는 총 15톤으로 1500가구에, 쌀은 10톤으로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하고, 쌀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농협에서 구입해 능가 판로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했다.

효성은 매년 연말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해 쌀은 지난 2006년부터, 김



효성은 지난 9일 마포구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

치는 2007년부터 전달해 왔다.

오는 16일에는 아현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생필품은 총 4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쇠고기 족, 사골곰탕 등으로 구성했다.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고령의 독거노인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진행해 왔다. /차현정 기자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 노사협력관 황인수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부음

▲주동기씨 별세, 주성모(라인건설

차장)·주성철(현영건설 대표이사)씨 부친상, 강대욱(광주은행 광주시청 지점장)씨 장인상=10일 오전, 빈소 광주 광산구 수완동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062-951-1004

▲이애도씨 별세, 박영일(전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노기술원 이사장)씨 모친상 = 서울대병원장례식장 6호,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영락동산. 02-2072-2010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를 배우다. 시대와 통하다.

• 영도학부

• KIO학부

• 연세학부

• 한겨레학부

• 스페인어학부

•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 경영학부

•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 다문화·심리상담학부

• K뷰티학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2024. 12. 1(일)~2025. 1. 16(목) 2차 2025. 2. 3(월)~2025. 2. 17(월)



문의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장님을 이끄는 장님



홍경안 역
시시일각

‘장님을 이끄는 장님’(1568)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배경 아래 여섯 명의 장님이 줄지어 걷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앞에 있던 장님은 이미 구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두 번째 장님은 막 넘어지려는 순간이다. 균형을 잃은 채 비틀거리고 있는 그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혹스러움이 역력하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곧 첫 번째 장님과 같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르 브뢰헬이 그린 이 풍자화는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통찰 없이 다른 사람을 이끌 경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3일 ‘장님을 이끄는 장님’의 경고가 현실화됐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즉 비상계엄이다. 야당에 대한 감정적 반발로 인한 그의 돌발 행동에 나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으며 경제는 올 스톱됐다. 장갑차와 헬기가 등장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려 하자 의신들은 일제히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다. 이어 7일, 헌정 중단을 시도한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는 등 범상치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그가 국정에서 손을 떼단다. 왕정 국가도 아니건만 국정 운영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사람 아니다. ‘일임’은 언제든 철회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국정 관여도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8일에도 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내란죄 수사대상인 한덕수 총리와 행정부의 일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한동훈은 정부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당에 위임 또는 승계하거나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특히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국정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탄핵만이 답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연명은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장님을 이끄는 장님’에서처럼 우매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길엔 불행한 말로만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뒀야 하는 상황이다. 쿠데타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정신 나간 지도자와 내란조차 용인한 정당이 합잡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판이다.

국민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믿지 않는다. 모두 축출해야 한다. 술한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유와 권리, 헌정을 위해 국민이 나설 때이다. /미술평론가

이복현의 임기 그리고 인사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계엄이래! 너 괜찮냐? 그런데 내일 국장은 한대?” 지난 3일, 늦은 밤 10시. 기자가 아닌 지인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거하게 취했을 시간이기도 ‘한 잔 했나?’, ‘가짜뉴스 봤나?’ 하는 생각으로 뉴스 페이지를 훑었다. 정말 ‘비상계엄’이었다. 북(北)의 도발도, 침공도 없는 21세기형 계엄. 기괴한 경험이었다.

4일 아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기 때문일까? 주가는 생각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장은 평소처럼 열렸다. 다수의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양대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수 있다는 공포까지 엄습했기에, 마치 ‘선방’한 기분마저 들었다.

‘국가원수’가 만든 증시 변동성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사단의 ‘막내 검사’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니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도 빨라졌다.

4분기 들어 금감원장 임기 ‘연임설’까지 술술 나오긴 했지만, 이번 탄핵 정국으로 연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 정국을 돌이켜보면 이 원장이 남은 임기(내년 6월 종료)를 채울 확률이 크다.

금감원장은 통상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까지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금감원장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탄핵 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며,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금감원장 교체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의 업무 시계는 멈췄지만, 금감원의 시계가 멈추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부원장보와 국장 인사가 계엄 사태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오히려 더 빨리 결정됐다.

13일 발표, 17일 시행 예정이던 국장 인사는 10일 발표, 13일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금융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않았을까.

이번 인사는 이 원장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까지 그의 인사는 ‘파격적’, ‘연공서열 파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앞으로 금감원이 맞닥뜨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1일 (음 11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재물 운세가 상승이니 좋은 소식이 올 것. 48년생 오늘 일은 어제 의고난에서 오는 보답. 60년생 오래전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72년생 돈만 써대는 형제일 처리하다 발전이 저만치 멀어진다. 84년생 마시는 물도 조심해서.



37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49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61년생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73년생 남품한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85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



3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50년생 뛰다 보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6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4년생 이성 간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



3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51년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63년생 우물에서 송을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75년생 손톱 밑에 가시처럼 구슬이 제거되니 후련하다. 87년생 이성 운이 좋은 시기이니.



40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라. 52년생 주책을 즐겨받을 일이 생긴다. 64년생 젊어서 모아야만 새삼 아프지 않다. 76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평온한 하루. 88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은 실력이 우선이기에.



41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53년생 가까운 친구의 모함을 받게 되니 주의하자. 6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중. 77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오니 자중해야. 89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하루.



42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으로 온다. 54년생 계획한 일이 무리일지라도 응원하며 나아가라. 66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78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는 금물. 90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43년생 야근으로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55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67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기본 좋은 날. 79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91년생 언제나 구르는 돌에는 아기가 끼지 않으니 부단히 노력.



44년생 주책씩 웃이 행운을 가져온다. 56년생 성실해야 미래가 편하다. 6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80년생 삼각관계의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 92년생 산 좋고 물도 좋는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45년생 뒤편 열심히 하면 운도 따른다. 57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는 없으나 내일 또 태양은 뜬다. 69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면 겁낼 게 없다. 81년생 떠들썩한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일을 해내야. 93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을 해야.



46년생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58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70년생 꽃이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82년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직 생활을 해보고 나서가 순서. 94년생 한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하다.



47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감수. 5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작은 먼지로 눈이 매우 아프다. 83년생 동료의 협조로 예년 자가 두 배. 95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될 것이라고 외쳐보는 것도.



김상회의四季 철성기도 정성

서양의 종교는 유일신 개념이라 오로지 그 한 분에 대해 기도만 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동양은 기본적으로 범신론 개념인지라 두두물물(頭頭物物)에 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불교에서는 보살 도를 성취하여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된 수많은 불보살이 중생들의 어려움을 두루두루 살피고 피한다고 하는 믿음이 굳건하다. 사람마다 발원의 내용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듯이 불가의 불보살님들도 각기 전공(?)이 있다. 즉, 의 사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와 병의 원인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어느 수준 이상이지만 각기 심장 전문의, 폐 전문의처럼 나름의 특장 전문이 있듯이 우리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에 따라 자비하신 불보살들에게도 각별히 칭호만 들어도 알만큼 우선적인 효험을 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 신도분들이나 주변의 독실한 불자들을 뵈자면 신심도 훌륭하고 겸손하다. 나름대로는 주변의 인연들에 알게 모르게 형편껏 덕을 베푸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 복덕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이분들의 기도를 보자면 무조건 “나, 이거저저 되게 해 주세요.”가 아닌, 스스로 성의를 다하면서 가피를 구하는 모습이다. 역시 필자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신도 한 분은 매일 음력 칠일마다 철성 기도를 올린다. 가족들이 직장 공부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기에 먼 길 떠난 식솔들의 안녕과 무탈함에 감응을 해 주시는 기도가 철성 기도이다. 민간적으로는 철성 기도와 같이 장독대에 정갈히 물 한 그릇 담아 올리며 하던 기도는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행해지던 정성이다. 철성 기도는 수명의 장원 자손의 점지 건강은 물론 타지에 나간 식솔들의 안녕에도 감응이 탁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열과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8				7			
3				2	1	5	9
5	2	4			7		
1	6			2	3		
			8	5			
		7	6			2	5
		6		9	5	4	
4	9	5	1				7
			2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통 역세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운영중단
오는 16일부터 재개... 4년 9개월만
광역교통망 확충, 시민 교통 편의↑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도심공항터미널)이 재개통돼 역세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도심공항터미널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공항터미널은 KTX광명역과 인천공항 간 편리한 연계를 위해 광명시-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2018년 1월부터 광명역사에 설치·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이 재개되면 인천공항 국제선 접근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KTX광명역세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항공 체크인과 수하물 발송을 미리 할 수 있고, KTX-공항버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전용 출구를 이용해 빠르고 편한 출국을 할 수 있다.



KTX 광명역 전경.

시는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9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버스 노선 신설 추진, 공항버스 정류장 재정비 지원, 도심공항라운지 내 공항버스 정보 시스템 제공, 도로표지판에 광명역과 도심공항터미널 병기 표시, 홍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8507번 버스를 내년부터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영하여 KTX광명역

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8507번 버스는 오리서원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해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경제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고교생, 대학서 수업 들으면 학점 모두 인정

2025년부터 고교-대학 연계학점 구축
수업 만족도 ↑, 학교 과목개설 부담 ↓

(2025년 참여 시도교육청 및 대학)

시도교육청	참여대학
부산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대구	영남대, 대구보건대
광주	조선대, 조선간호대
울산	울산대
전북	전북대, 전주교대, 국립군산대, 군산간호대, 원광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우석대

/교육부

2025년부터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동교육과정(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타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개설도 어려운 과목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제공) ▲학교밖교육(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체제) 등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공동교육과정은 지난 2023년 기준 5478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온라인학교는 올해 9개교에서 내년 17개교 등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학교밖교육도 지난해 기준 41개 과목에서 112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됐다.

이번 방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

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교육을 활성화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맺은 상호협약에 따라 대학은 시도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고교1학년부부터 3학년까지 학생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에 마련된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등에 수업을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성적은 산출·기재되지 않고, 과목명,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기재될 예정이다.

/이현진

서울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 나서
국내 최초 인증제 도입... 편의 제고

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제공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실시간 충전 정보를 3분 이내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신고 청구도 통합해 이용 불편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된 충전기는 이날부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용자가 인증된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한다.

그간 50여 개의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 ▲고장 발생 시 느린 대응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 체계 구축에 나선다.

1차로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1000대를 통합하고, 향후 민간 충전기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약 1000기의 제

조사별 상이했던 고장 코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렸던 충전소 정보제공 통신주기를 1분 이내로 통일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 성능 강화, 고장예방과 신속 대응, 정확하고 빠른 인증제는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등 3개 분야 총 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34기를 평가, 현재까지 81기를 인증 완료했다.

/이현진 기자 lhj@

인하대, 디스플레이용 발광소재 난제 해결

TMD 혼합 통해 빠른 인광 구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이 디스플레이용 발광 소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하대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최진호 화학공학융합학과 박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팀은 유기물과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TMD)의 혼합을 통해 마이크로초 단위의 인광을 만들었다.

TMD는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는 그래핀 이후 각광 받는 2차원 재료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암석에서

얻을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이다.

연구팀은 TMD의 무거운 전이금속이 유기물에 강한 스핀-궤도 상호작용을 유도해 순수 유기물의 단일항과 삼중항 상태 사이 전이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팀이 관측한 마이크로초 단위의 인광 특성은 두 물질 간 화학적 결합 없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는 효과만으로도 상온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인광 소재가 가지는 긴 지속시간으로 인한 잔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재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지속가능한 마이스산업 구축 앞장

'서울 마이스 ESG 비전 포럼' 개최

서울시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 마이스(MICE) ESG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마이스(기업

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운영 확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를 서울형 마이스 ESG 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제로 마

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시는 마이스 관계 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서울관광재단과 '서울 마이스 ESG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으며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2월 11일 (수)

음력: 11월 11일

수도권 날씨

0 ~ 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37 | 해질 / 17:14

연천 -4/7

동두천 -3/7

가평 -4/7

파주 -4/6

서울 0/6

양평 -3/6

인천 0/5

수원 0/6

용인 0/6

평택 -2/6

백령도 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인수위,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사진 뉴시스
▲트럼프 취임 노림수?... 中 특목, 美 법원에 “강제 매각법” 발효 시점 미뤄달라

▲美 국무부, 탄핵 정국에 “현 대통령은尹... 정치는 법에 따라 진행돼야”
▲中 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한국 통치체제 혼란 극에 달해... 日 정부, 對韓외교 방향 고심”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재입국위해 남부 국경관문 재개방 /사진 뉴시스



유가공업계
저출산 위기 속
수출 돌파구 마련
니



Life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경쟁 치열
대규모 자금 투입
L2



“패키징 능력이 반도체 성패 좌우… 2026년 새 기회 올 것”

속깊은 인터뷰 강사운 반도체패키징학회장

디지털이 인간의 오감(五感)을 구현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시각과 청각은 물론 촉각, 향기, 맛까지 디지털 센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추세다. 디지털 기기의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 글래스, 증강·가상현실(AR·VR) 등 영화에서나 접한 흥미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속속 등장했다.

끝없이 확장되는 디지털 세상은 반도체는 물론 패키징 영역에 무한 가능성 시대를 열었다. 기존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은 싸고 튼튼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작고, 얇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쌓고 묶어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어떻게 ‘맞춤 설계’ 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패키징 능력이 반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른바 ‘패키징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강사운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장은 그 배경으로 ▲사이즈는 작고 성능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기의 진화 ▲서버의 등장으로 급증한 데이터 ▲디지털 기기의 다양화를 꼽았다. 특히 강사운 학회장은 향후 디지털의 진화는 가속화되며 패키징 경쟁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대가 열리면 고객의 수요는 점차 다양해지고,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 패키징 생태계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사운 반도체패키징학회장이 지난 4일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사무실에서 메트로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패키징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패키징의 가치가 변했다. 전통적인 패키징의 역할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싸고, 질기고, 오래입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 패키징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었다. 디지털 기기들이 작고, 얇고, 가벼워지는 반면 성능은 점차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해진 계기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가 PC와 노트북, 태블릿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작은 영역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많은 칩들을 옥여넣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에서 생산한 반도체들을 어떻게 쌓고 연결해서 성능을 높일 것인가 하는 패키징 기술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진화했다. 2017년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가 생겨나면서 서버용 메모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2020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학습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 서버의 등장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

“서버를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난 수준이다.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

스마트폰 등장 후 디지털 급속 진화 고객이 원하는 패키징 가치 바뀌어 반도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

국내기업, 첨단 패키징 개발 미흡 협업 어려운 국내 생태계도 ‘한계점’

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고성능 AI칩의 가격은 1개에 4만~5만달러에 달한다. 서버 1개당 이러한 칩이 최소 3000개가 필요하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을 위탁생산하는 파운더리 업체가 가진 노광 장비는 한 대에 2500억원을 호가한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됐다.”

- 디지털 기기의 다양화는 어떤 의미인가.

“이전에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정도에 대응하면 됐지만 이제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VR, AR, 전기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각 기기에 맞춰 실리콘 디바이스를 설계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쌓아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시 고성능 AI칩

과 반도체 패키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 세계 AI칩의 60%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와 그 파운더리를 전담하는 대만 TSMC가 급부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30년간 지켜온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며 후발주자로 밀려날 위기에 놓여있다.

- 한국이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반도체는 줄곧 메모리 반도체에 위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패키징을 포함한 모든 기술이 내부에서 소화되면서 다양한 고객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반도체는 이미 기술집약산업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주인 국내 기업들은 아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 반도체 생태계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다.

“국내 중소·중견 패키징 업체 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 대기업의 하청 업체가 된 이상 다른 기업과의 협업과 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강 회장은 서버가 필요없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의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연결을 통해 서버와 주고받는 기존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기 자

체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다. 반도체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온디바이스 AI는 무엇이 다른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실시간 통역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개인비서 코파일럿이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다. 온디바이스 AI는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분석하고 다시 기기로 돌아오는 과정이 없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자제품은 물론 공장 자동화, 사물인터넷 등 모든 곳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필요없는 ‘온디바이스 AI’ 눈앞 엔비디아·TSMC 의존도 크게 줄고 2026년부터 변화 움직임 나타날 것

학회, 패키지 융합기술 중요성 알려 국가적 투자로 중소기업 함께 성장해야

- 반도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지금처럼 서버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엔비디아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다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2025년을 정점으로, 2026년부터는 변화의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 온디바이스 AI용 설계에 강한 퀄컴과 같은 기업이 또 다른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는 지난 달 5~8일 세계 각국 패키징 전문가를 초청해 ‘ISMP-IRSP 2024’를 개최했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패키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례행사다. 2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 학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정기적인 학회를 열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에 참석하며 첨단 패키징 분야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패키징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에 글로벌 기술 트렌드들을 번역해 제공하거나,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강연도 하고 있다.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도 강연해 패키지 융합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패키징 생태계 형성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대만은 TSMC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하부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소재나 부품을 개발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는 반도체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 형성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중견·중소 기업들을 키워내고 함께 융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축구 선수들이 뽑은 월드 11 공개…18년 만에 메시 제외
▲PSG 이강인, UCL 탈락 위기…5경기 만에 승리 도전 /사진 뉴스스

▲손흥민, 갈라타사라이 이적설…“만유가는 오시멘 대체자”
▲문체부, 미디어 스타트업 5개사 지원…해커톤 대상은 ‘비글’



▲‘노벨문학상’ 한강 초상화, 교보문고에 걸렸다…화가 박영근 작품 /사진 뉴스스
▲콘진원, 싱가포르서 K-방송콘텐츠 수출상담 3636억 성과